

# 익산시, 청년 정착 유도 정책 편다

### 주거안정·창업지원에 44억 투입 취업드림카드사업·청춘센터 운영

익산시가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난제(難題)인 인구문제 극복을 꾀한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해 올해 44억원을 투자해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전북 최초로 근로청년수당을 도입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할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설계 중이다.

구체적인 소득 요건, 타 재정지원사업과 중복 여부 등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내년 도입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문제 해결에도 주력하고 있다.

결혼 장려와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청년이 보증자리를 마련하려 할 경우,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내 금액을 최대 6년간 지원한다.

또한 청년센터 '청춘'의 운영 확대를 통해 취업·문화·일자리 등의 문제도 극복한다. 청춘을 청년 창업·일자리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해 창업 준비부터 성장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도내 유관기관 창업기능을 모아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한 연계 협력 체계를 갖춰 청년



청년문화학교 캘리그라피

창업 지원 컨트롤 타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는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를 비롯해 희망네트워크, 희망정책위원회 등 약 50명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의 의견을 수렴해 이를 시책에 반영하고 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사업은 지원 2년차에 접어들면서 203명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고 있다.

여기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지원, 포인트제도, 정책학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취업 준비 시 소요되는 비용을 매월 30

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취업드림카드 사업에도 180명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으로 지역 중소기업에 근로하는 144명의 청년들에게 인건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핵심"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해 청년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안정적인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아름다운 명품거리 '예쁜 간판 꾸미기'

### 남원시·고창군, 간판개선사업... 지역 역사·문화 디자인

남원시와 고창군이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전북도 '예쁜 간판 꾸미기'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역사성과 문화가 반영된 간판을 설치해 도시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남원시는 '두 개의 전통시장을 이어주는 의종로 간판 개선 사업'을 진행한다.

노형수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간판 개선에 더해 지역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디자인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은 '흥덕 선운대로 예쁜간판 꾸미기 사업'을 펼친다. 고창군은 내년 1월부터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노후건물 10층의 건물외벽이 정비되고 50여개 업소의 간판이 개선된다.

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흥덕면 선운대로 3714~3741번까지 423m 구간이다. 흥덕면의 중심도로인 이 곳은 선운사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처음 접하는 곳에도 흥덕터미널과 주변 건물들이 낡고 난립한 불법광고물로 인해 경관미미와 보행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창군은 선운대로를 '품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지'로의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역사의 시각화, 지역 특유의 스토리텔링 등을 사업에 접목할 방침이다. 또 흥덕면 지역 이야기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흥덕면 선운대로 일원 상가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사업에 참여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 '따뜻한 연탄나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지사장 위성일)는 지난 14일 정읍시 거주 주민 7세대 등에 사랑의 연탄 2500장을 전달했다.(사진)

이번 나눔 활동은 건강보험공단과 정읍시, 정읍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은성수), 가족봉사단이 공동으로 실시했다. 200만원 상당의 연탄 2500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모금한 자체 예산으로 마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랑의 연탄 1500장 전달을 시작으로 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위성일 건강보험공단 정읍지사장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들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용기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는 수혜가구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

## 정읍한백통일, 통일지도자 합동 수료식·강연회

(사)한백통일재단이 주관하고 (사)정읍한백통일이 주최한 통일지도자 합동 수료식이 지난 13일 오후 6시 정읍시 순정축협 2층 한우명품관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에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정읍한백통일 회원 및 수료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료식에서 한백통일재단 이사장 이자장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통일 공감대를 형성해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이자 영원인 통일을 앞당기자"고 격려했다.

유화숙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중앙과 지방

을 연계하는 통일민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통일의 기수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수료식에선 모범 수강생 표창과 71명의 수료생에게 수료증이 수여됐다. 수료식에 이어 유종근 전 전북지사의 '우리 세대에 가능한 통일'이란 주제의 강연도 열려 행사를 풍성하게 했다.

(사)한백통일재단은 2016년 10월 100명의 회원이 참여해 지부인 (사)정읍한백통일을 설립하고 그동안 통일포럼, 통일교육, 조직기반 확충, 북한 이탈주민 농촌정착 프로그램 운영, 안보현장 견학 등 다채로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 군산시 '드림스타트 문화체험' ...가족간 소통

### 22가정 대상 프로그램 진행 성료 체험 통해 친밀감 향상·관계 개선

군산시가 드림스타트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최근 임실군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드림스타트 사업대상 22가정(미취학 아동 26명, 부모 22명)과 함께 '가족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야외 체험 기회가 부족한 드림스타트 가정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가족 간의 화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정들은 임실치즈와 1인용 쌀 피자 등을 직접 만들어 보고 임실치즈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치즈 홍보관, 플레이랜드 등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모든 체험 활동 진행 시에는 참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군산시 드림스타트는 매년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간 친밀감 향상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고, 듣고, 느끼며 가족 관계 개선을 통해 아동의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김주홍 아동청소년과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소통을 통해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들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거듭 자라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 마련 및 폭넓은 지식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지원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기섭 기자 nogusu@kwangju.co.kr

## 순창군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

순창군은 '제6회 섬진강 전국사생공모전'을 오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섬진강 사생공모전은 섬진강을 비롯해 강천산, 체계산 등 지역 대표 관광지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 폭의 그림에 담고자 지난 2015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매년 입선작들은 순창 공립옥전골미술관에 전시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다. 분야는 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만화·애니메이션, 풍경화 등 총 5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초등부는 풍경화, 중·고등부는 풍경화와 애니메이션, 대학생들을 포함한 일반부는 서양화·수채화·한국화 등이다. 작품 규격은 학생부가 4절지, 일반부는 20호에서 50호까지다.

응모는 1인 2작품 이내로 할 수 있다. 중복 수상할 경우 최고수상작 1점만 시상한다.

소재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강천산 군립공원과 섬진강 유역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한 미발표작으로 한정한다. 작품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로 등기우편이나 택배, 방문해 응모하면 된다. 응모시 지역 방문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사진이나 사진, 이송권, 입장권 등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일반부 대상에게는 상금 500만원과 문화체육부장관상, 학생부 대상에게는 상금 50만원과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옥전골미술관(650-16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 의령玉氏 대동보(족보) 발간 알림

◆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뒤흔세

# 코로나-19에도

# 뿌리 깊은 의령옥씨의

# 신축대동보(2021) 발간을

# 준비합니다.

◆ 이북에 고향을 둔 의령옥씨 종친들(학생공파, 학사공파, 평장사공파)께서는 보다 더 큰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 간혹 호적상 본관이 거제, 밀양, 반성, 사천, 의성, 진주로 신고 된 옥씨의 원 뿌리도 당나라에서 고구려에 파견(635년)된 정관팔학사 의령玉氏의 시조 玉眞瑞옥진서임이 명확합니다.

※ 최근 본관이 진주로 등재된 玉氏가족이 의령玉氏족보를 근간으로 본관을 진주에서 의령으로 정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의춘사 전경



◆ 의령옥씨 상징탑



◆ 의령옥씨 뿌리관련 간행물

- ◆ 시조 의춘군 옥 진서를 비롯한 상·대전 효문화뿌리공원 내에 계선조14위를 모신 의령옥씨 사당 설치된 의령옥씨 상징탑
- ◆ 경상남도 의령군 대의면 신전리 ◆ 전국 222개 성씨 참여

- ◆ 갑자보(184년)
- ◆ 기묘보(1999년)
- ◆ 계해보(1863년)
- ◆ 학사공파(1935년)
- ◆ 정미보(1907년)
- ◆ 평장사공파(2012년)
- ◆ 갑오보(1954년)
- ◆ 의령옥씨 1500년사
- ◆ 병진보(1976년)
- ◆ 옥보고략 등

◆ 수단등록기간 : 2019년 12월 1일~ 2020년 11월 30일

- ◆ 연락처 : 051-504-8912 ◆ 팩스 : 051-504-8913
- ◆ 편찬위원장: 옥삼중, 옥형길 ◆ 사무총장 치원 010-6580-4493 ◆ 사무국장 종석 010-3855-8377
- ◆ 별시위공파: 대표 동환 010-2796-1775 ◆ 감사공파 : 대표 도민 010-2999-6886
- ◆ 교리공파 : 대표 영호 010-9581-0454 ◆ 평장사공파: 대표 평권 010-3797-6326
-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범원남로15번길 7 오름빌딩 8층
- ◆ 홈페이지 : http://www.uroak.com 치운 010-9606-2589
- ◆ E-mail : orumeng1@naver.com

의령玉氏 대종회장[추진위원장] 옥치남 010-3550-8912